

“시로 맞춤형곡·음질까지 최적화” 韓 음원플랫폼, 글로벌 공세 ‘반격’

스포티파이 도전에 정면 대응
FLO, LLM 활용·AI기반 음악 추천
멜론, 음질 개선·사용자 경험 강화
지니뮤직, 리메이크 플랫폼 ‘리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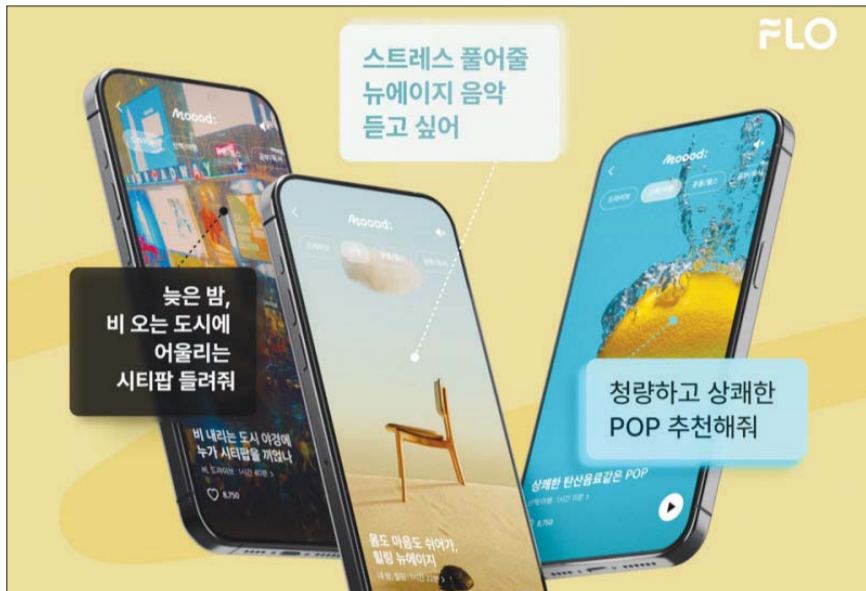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앞세워 글로벌 음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스포티파이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으로 시장 판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멜론과 플로 등 국내 플랫폼들은 AI 기반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지난달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인 ‘스포티파이 프리’를 한국에 출시했다. 사용자는 30분 주기로 오디오 광고를 듣는 대신 개인 맞춤형 플레이리스트와 팟캐스트 등 모든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 후 스포티파이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설치자 수는 급증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 수는 전월 대비 198% 증가한 109만 명에 달했다. 또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도 역대 최대치인 262만 명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국내 플랫폼들의 사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 조사 결과, 지난달 국내 음원 플랫폼 사용자 순위에서 유튜브 뮤직은 754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멜론(706만 명), KT의 지니뮤직(291만 명)이 뒤를 이었다. 4위를 기록한 플로(217만 명)는 스포티파이(127만 명)와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들은 AI 기술을



SK스퀘어 관계사 드림어스컴퍼니가 운영하는 음악 플랫폼 ‘플로’(FLO)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어스컴퍼니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SK스퀘어 관계사 드림어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플로(FLO)는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큐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다. 플로는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음악 추천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곡들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은 2000년대 해외 팝 들려줘”와 같은 검색어에 AI가 최적의 곡들을 추천하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오디오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해 자연어 기반의 검색과 플레이리스트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인트 임베딩 아키텍처’ 기술이 적용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은 AI를 활용해 음질 개선과 사용자 경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믹스업’ 서비스는 한 곡을 선택하면 유사한 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추천해 10~20대 이용자 비중이 40%에 이를 정도로 젊은 세대에

분석해 최적 음향효과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EQ AI 마스터’와 음량 일관성을 유지하는 ‘음량 최적화’ 기술도 탑재해 고품질 음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명반 큐레이션 서비스 ‘에디션M’과 틱톡 연동 저장 기능 등으로 서비스 확장을 꾀하고 있다. 에디션M은 국내 대표 음악 평론가들이 대중음악 역사를 대표하는 명반과 장르별 명곡을 소개하는 서비스다.

KT의 계열사인 지니뮤직은 AI를 접목한 음악 큐레이션을 선도하고 있다. ‘빠른 선곡’ 서비스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곡 추천 기능으로 호응을 얻으며 출시 한 달 만에 이용자 수가 두 자릿수 성장했다. 또 AI 기반 음악 리메이크 플랫폼 ‘리라’를 선보이며 편곡·믹싱 작업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리라는 웹 환경에서 디지털 악보를 즉석에서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윈스톱 작업 도구로, 창작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K-뷰티 수출 호조에도 中企 고용·창업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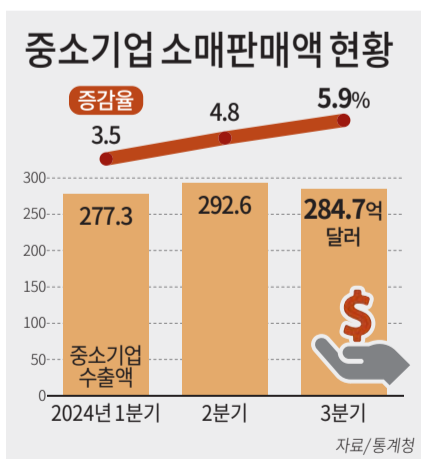
중소기업 3분기 수출 5.9% 증가
취업자 수 전년 대비 2.3만명 줄어
기술기반 창업 1.4만개, 전년비 6.4% ↓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이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 생산 활동과 고용, 창업 등은 모두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KOSI 중소기업 동향’ 2024년 1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중소기업 생산이 -5.3%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조업일수 감소(-1일)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전자부품’ 등 주요 업종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소서비스업 생산(-1.3%)도 감소했다. 민간소비 부진, 명절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이 줄면서 하락했다.



지난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84억 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다. ‘화장품(+26.7%)’, ‘반도체 제조장비(+28.6%)’, ‘자동차(+24.3%)’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세와 주력시장 ‘미국(+8.8%)’의 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효했다.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64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3000명 줄며 감소 기조로 전환됐다. 규모

별로는 ‘1~4인 업체’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00명 감소했다. ‘5~299인 업체’는 2만 2000명 줄며 감소 전환했다.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1만 7000명)’, ‘임시근로자(+7만 4000명)’는 증가폭이 둔화했고, ‘일용근로자(-10만 1000명)’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 9월 창업기업 수는 8만 2631개로 ‘제조업(-13.7%)’, ‘건설업(-4.8%)’, ‘서비스업(-10.9%)’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줄며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지식기반서비스업(-4.9%)’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1만 4793개를 기록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정책당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 시행과 기술창업을 장려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화학, 친환경 패키징 기술로 ‘대통령상’

단일 소재로 강도·투명성 구현

LG화학이 친환경 플라스틱 패키징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화학은 친환경 플라스틱 패키징을 위한 자사 기술이 2024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기술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 시상식이다.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LG화학이 개발한 ‘이축연신 폴리에틸렌(Biaxially Oriented Polyethylene, BOPE)’은 고분자의 결정 구조부터 새롭게 설계해 단일 소재임에도 높은 강도와 투명성을 가진다. 이를 패키징에 활용할 경우 재활용도 쉽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름 포장재는 내용물 보호를 위한 강도 확보를 위해 폴리에틸렌과 나일론 등 여러 플라스틱을 섞어 사용해왔다. 이에 물리적 재활용이 어려워 분리수거 되더라도 대부분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LG화학이 개발한 BOPE는 리필용 세제, 내용물이 투명하게 보이는 팻푸드(Pet food) 파우치 등에 친환경 패키징 용도로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패키징 소재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LG화학 최이영 연구위원은 “투명하면서도 질기고 환경에도 좋은 패키징 재료를 찾고 있다는 고객의 목소리가 연구의 발단이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과 재활용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국내 최대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 구축 박차

대한전선, 투자자 대상 IR행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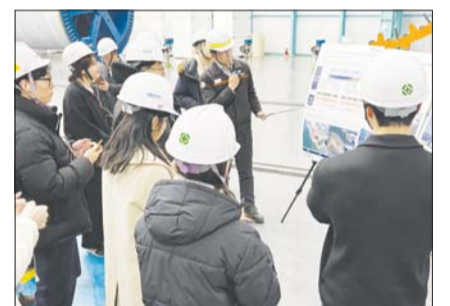
대한전선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전선은 지난 26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케이블공장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진행된 IR 행사로, 3분기 경영 성과와 주요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투자자들이 대한전선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생산 거점인 충남 당진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케이블공장에서 VCV(수직연속압출시스템) 타워 등 HVDC(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설비를 둘러본 후, 해저케이블 1공장을 방문해 지난 6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1단계 설비를 확인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해저케이블 2공장 2단계 건설 현장과 해저케이블 2공장 부지도 둘러보며 대한전선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대한전선은 케이블공장, 해저케이블 1, 2공장 등 모든 생산 설비를 충남 당진에 집중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지난 26일 대한전선 IR행사 참석자들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한전선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점유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대한전선은 3분기에 기록한 역대급 경영 성과도 공개했다.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가 확대되면서 3분기에만 9700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 3분기 말 기준으로 2조 3257억원 규모의 누적 수주 잔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8400억 규모의 신규 수주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수주 잔고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업설명회 자료는 대한전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일반 투자자와 미참석 관계자들도 확인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KT 비즈메카EZ, 메일 보안 서비스 강화

AI위협메일 차단서비스 출시

KT가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인 ‘비즈메카EZ’에 메일 보안서비스 ‘AI위협메일 차단서비스’를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즈메카EZ는 중소기업 업무에 최적화된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KT는 비즈메카EZ에 최신 AI 기술을 적용해 최첨단 AX(AI Transformation)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AI위협메일차단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출시했다.

AI위협메일 차단서비스는 KT의 빅데이터 기반 AI기술로 외부 악성 이메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KT가 자체 보유한 AI 분석탐지 모델이 적용되어 낱말이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신종/변종 메일 해킹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비즈메카EZ 메일서비스 이용고객은 도메인 변경, IP변경, 초기세팅, 장비설치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한 신청만으로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